

* 정답은 문항 옆에 붙어 있는 미주 번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④

(가)에는 전란으로 인하여 헤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나)에는 갈 수 없는 '삭주 구성'에 대한 그리움이, (다)에는 '그대'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대상과의 단절로 인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2) ②

삭주 구성은 '물 맞은 제비도 비에 걸려 돌아 오는 산 너머 옥천 리'라는 구절을 통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조차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을 시적 화자가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삭주 구성은 시적 화자가 꿈에도 그리던 곳이고 임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곳을 갈 수 없기에 시적 화자는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비탄에 잠겨 있는 것이 된다.

3) ③

시적 화자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화한 인간사의 모습과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보기>시의 화자는 나라가 부서졌지만 자연만이 그대로인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시가 ㉠보다 시적 화자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4) ①

가족의 소식이 만큼보다 값지다는 것은 전란으로 인해 헤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과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은 ①이다. ①에서도 고향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어 밤을 혼자 새우고 있는 심정을 드러내었는데, 이것은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5) ③

'꿈'은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공간에 가고 싶은 심정을 그나마 해소해 보려고 시도하는 세계일 뿐이지 시적 화자의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은 아니다. 시적 화자의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은 '삭주 구성'이 된다.

6) ④

'삭주 구성'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면, '섬기술'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이다.

7) ②

손발이 묶인 채로 누워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마음 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철사줄에 묶여 잡혀 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소대장이 유골이 빨갱이였을 것이라 하였지만 인사는 그걸 누가 아냐고 하여 유골의 신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 '나'는 유년 시절의 깊은 상흔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애써 죽음을 부인하고 싶은 심정을 지니고 있다.

8) ③

이념의 대립이 유발한 고통스러운 굴레를 상징하는 '철사줄'을 노인이 허공을 향해 내던지는 순간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고, 증오스럽게 생각하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게 된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 포용하는 함박눈에 비해 냉혹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철사줄'은 이념적 대립의 극복과 화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인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9) ④

<보기>에서 진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통해 유해가 형의 것임을 확인하지만 '나'는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유해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것이다. 따라서 '나'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⑤

노인은 소대장과 인사가가 유골의 신분에 대해 언쟁을 벌이는 것을 듣고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걸 굳이 따져 무엇 하자는 말이오."라고 하여 서로의 적대감으로 인한 비극을 넘어서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념보다는 포용을 통해 비참하게 죽은 자를 끌어 안는 너그러운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죽음에 대해 관용과 포용의 너그러움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은 ⑤가 된다.

[오답풀이] ①은 이상화의 '통곡'으로 참담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②는 박인한의 '검은신'으로 슬픔과 죽음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상실과 절망의 심정을, ③은 조병화의 '어느 여행자의 독백'으로 삶과 죽음에 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심정을, ④는 조정권의 '산정 묘지'로 허무한 지상적 삶을 초월하고, '가장 높은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산정 묘지'에 다다르려 하는 시인의 현실 초극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 ③

유해의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을 풀고 새로이 무덤을 만들어주는 노인의 정성스럽고 경건한 동작을 지켜보며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환영을 떠올리며 '나'는 노인이 수습한 유골의 모습처럼 아버지가 차가운 땅에 누워 있을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심정을 갖게 된다. 이것은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나'가 절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아버지는 이제 저주스런 대상에서 연민의 대상으로, 나아가서는 공감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 된다.

12) ⑤

숙향은 남편인 이선이 매향과의 혼사를 거절하면 신하로서 황제의 명을 어기게 되니 옳지 않다고 했고, 매향이 평생을 홀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니 그녀로부터 원한을 살 수 있다고 염려하였다. 이런 이유로 숙향은 매향과의 혼사를 받아들일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매향이 타문에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선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 한번 정해진 혼약은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② 황제는 처음에는 이선을 두둔하지만 나중에는 양왕의 편에서 일을 해결하려 들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주지도 못했다.

13) ⑤

<보기>의 양소유는 다른 여자와 이미 혼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마로 삼겠다는 황제의 명에 대해 당당하게 거절 상소를 올렸으며, 이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병을 핑계로 내세워 혼사를 피하려는 이선의 행위가 비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혼인은 이선 자신과 집안의 일이니 매향과 혼인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거절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불순하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기>의 양소유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다. ③ 이선이 매향과의 혼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④ <보기>의 양소유도 황제의 명을 어기고 있으므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14) ⑤

이선은 자신이 왜 칭병하면서 혼사를 피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숙향을 납득시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매향과 혼인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열거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그런데, 여기서 이선은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충분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⑤는 맞지 않은 설명이다.

15) ④

태몽에서 선관이 '매화나무(→매향)에 오얏나무(→이선)를 접하면'이라 한 것은 매향과 이선의 인연을 예언한 말로, 그렇게 되

면 '지엽이 번성하리라'고 한 것은 자손의 번창을 예언한 말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매향이 이선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 점, 그의 둘째 부인이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기>와 같은 줄거리를 구성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왕이 양왕에게 사과한 일은 <보기>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일이 없다고 해도 <보기>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16) ②

글쓴이는 (가)에서는 '기술이 내적인 발전 경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비판 논거의 핵심은 기술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사회적 이해관계의 총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기술은 사회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기>로 제시된 '수업의 개요와 목표'에서 '실천'은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실천을 의미하게 되며, 글쓴이는 이 수업을 통해 이러한 실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17) ①

(가)에서 글쓴이는 '기술이 내적인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술의 발전 경로'를 추적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나)에서 글쓴이는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기술을 스스로 진화하는 실체'로 여기는 사고가 놓여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견해는 기술을 인간 사회와 독립된 자율적 실체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18) ①

(가)에서 글쓴이는 '기술이 내적인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연구 결과를 논거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인용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글쓴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19) ⑤

[B]는 '거대 기술시스템'의 한 예이고, [C]는 기술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나)에 의하면 이러한 거대 기술시스템은 사회구성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율적 실체로 보일 수도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지적이 얼핏 보기에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술은 사회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율적인 실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분적으로'든 '결정적으로'든 기술은 사회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자료는 '기술이 사회를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⑤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다.

20) ③

문맥으로 보아 ㉠의 '나아가다'는 '어떤 정도를 넘어 확대되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비약'과 같은 말이 적절하다.

21) ②

신화가 민족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과 ④는 4단락과 5단락에서, ③은 첫 단락에서, ⑤는 3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22) ⑤

주어진 글은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지문에서 신화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진실을 보여 주고 총체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이 지문의 논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23) ①

지문은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근원적인 진실을 보여 주고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그리스 신화를 들고 있다. 즉 이 글은 그리스 신화만을 근거로 신화에 대한 일반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 이 글에 대한 비판적인 의문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㉔ 신화를 문화 콘텐츠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이 글의 주제와 무관하다. ㉕ 이 글의 초점은 신화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므로 탐방 기사에 의한 정보는 이러한 초점과는 무관하다. ㉖ 이 글은 신화의 서사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다. 아울러 신화가 형성된 이유 또한 집필 의도로 볼 수 없다. ㉗ 지문에 이미 언급된 이야기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㉔

<보기>의 트로이 전쟁은 신화적 세계에 대한 갈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㉔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나머지 선지들은 본문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보기>에 대한 해석도 적절한 것들이다.

25) ㉕

‘침전(沈澱)’의 사전적 의미는 ‘액체 속에 있는 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음. 또는 그 물질’이며, 지문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다. ‘물, 공기 따위의 작용으로 점차 분해됨.’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침전’이 아니라 ‘풍화(風化)’이다.